



즉시 배포용: 2017년 9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근로자 일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노동부(LABOR)의
커미셔너에게 지시**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잠재적 규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주관 청문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고용된 근로자 일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공청회 계획을 세우라고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커미셔너에게 지시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바로 몇 시간 전이나 심지어는 일을 시작한 후에도 근무 교대 일정을 잡거나 취소할 수 있는 고용주의 일반적인 관행인 “적시 근무(just-in-time)”, “호출(call-in)” 또는 “비상 대기(on-call)” 일정으로 알려진 근무 일정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관행은 소매 분야 및 기타 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며 근로자들이 미리 설정한 지출 경비를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근로자들은 일하러 가려고 애를 맡기기 위해 허둥대거나 미리 정해 놓은 약속, 수업 또는 중요한 가족 행사 일정 등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이러한 일정에 대한 보호 대책이 뉴욕주 전체에 적용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뉴욕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 일정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합리적인 보호 대책을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공청회는 근면한 남녀 근로자들에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강한 뉴욕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규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근로자들이 근무 일정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적시 근무/비상 대기(just in-time/on-call) 일정 관행을 조건으로 근무 일정을 세울 경우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근로자 및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할 것입니다.

공청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버니에서 9 월 28 일 목요일
- 뉴욕시에서 10 월 17 일 화요일
- 빙엄턴에서 10 월 26 일 목요일
- 버펄로에서 11 월 14 일 화요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를 알려주는 통지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최대의 자원은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근로자들입니다. 저희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근무 일정 관행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은 정책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매업과 같은 산업은 전통적으로 다른 의무 때문에 파트타임 일을 선택하거나 임금을 보충하려는 근로자들을 수용해왔지만, 오늘날의 파트타임 인력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때로 비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로자로 언급되는 이 근로자들은 상근직을 선호하지만 시간이 단축되었거나 상근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 년 8 월 현재, 경제적인 목적으로 530 만 명의 미국인이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매업, 식품 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미국의 모든 비자발적 파트타임 직의 약 4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서비스 부문 고용주들은 고객 수요 변화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업상의 위험을 대차 대조표에서 저임금 시간제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고객 수요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반영하여 15 분 단위로 직원 일정을 관리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는 적시 근무 일정(just-in-time scheduling)을 자동화하기 위해 정교한 일정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정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작성한 직원 일정관리는 고용주가 실시간으로 직원 배치를 조정하고, 예기치 않은 고객 수요를 담당하도록 직원을 호출하며, 매장이 바쁘지 않을 때는 조기에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근무 일정을 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의 근무 시간과 소득은 매주마다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지불 능력, 교육의 추구, 가족 돌보기 등의 일에 커다란 피해를 끼칩니다.

일하러 갔을 때 즉시 귀가 조치되더라도 고용주의 요청으로 일터에 나타날 경우 최소한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40 시간을 근무한 후에 근무한 모든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연방 정부의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요건을 초과합니다. 무려 200 만 명이나 되는 소매업 및 음식 서비스업과 같은 산업 및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뉴욕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실제로 일터에 나타났을 때 해당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예정된 근무 시간의 시작 또는 종료 전에 귀가 조치 될 경우, 호출 수당(call-in pay) 또는 '출근 수당(show-up pay)'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호출 수당(Call-in pay)은 최소 4 시간 또는 정기적인 근무 교대 시간 중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 기본 시간 적용시 어느 쪽이든 적은 쪽을 적용합니다.

소매업, 도매업, 백화점 노동조합(Retail, Wholesale & Department Store Union, RWDSU)의 **Stuart Appelbaum** 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 대기(on-call) 근무 일정은 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정입니다. 호출을 받아 일하거나 또는 정기적인 임금을 받아 일하거나의 여부에 상관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중단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근무 일정은 두 번째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의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계속 다니기를 원할 경우, 근무 시간을 알지 못해서 수업에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오늘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을 위한 또 다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삶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소매업 위원회(Retail Council of New York State)의 **Ted Potrikus** 위원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사생활의 안정 및 경제적인 안정을 근로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주정부의 비즈니스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은 뉴욕주 전 지역의 근로자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주지사님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예측할 수 없는 근무 일정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소매업 위원회(Retail Council) 위원들의 건설적인 의견도 매우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뉴욕 전 지역의 근로자와 소매업자들을 위해 영구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Kathryn Wylde**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직장 내의 불공평한 관행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를 소집하려는 주지사님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